



표지이야기

우제길, Light2014-1D, 캔버스 위에 아크릴, 91.0 x72.7cm, 2014
1942년 일본 교토 출생. 1987년 「이달의 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1994년 워커힌 미술관 초대 개인전(서울), 1995년 「우제길 회화 40년」전, 광주시립미술관, 2004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최고 인기작가상, 2008년 옥관문화훈장 서훈, 2009년 「한국추상회화: 1958~2008」, 서울시립미술관, 2018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선정, 2019년 개인초대전 「우제길의 빛」,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2020년 제18회 문신미술상 수상, 제18회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우제길 초대전, 개인전 총 98회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전 포함), 단체전 총 792회.

2	'창'을 열며 의자와 권력	박신영
3	특집기획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속살과 미래 재단 창립 과정과 가야할 미래 시민의힘과 실천의 시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Special thanks to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하자 문화운동, 문화시민 자긍심 거점 되길	김상윤 임인자 정두용 지형원 조덕진
14	문화인 탐구생활 소리로 마주하는 예술인의 삶	신혜람·이복순
19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물의 참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임준성
22	문화진단 '광주 시립 역사민속박물관' 개관 이후의 사회 독자의 눈(창)을 들여다보자	천득염 백승현
26	문화현장 광주시민회관의 재탄생, 100일 들여다보기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셀프서비스	정성구 이정난
32	문화청년그룹 지역문화기획을 위한 순수한 열정	김병희
34	문화리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아트페어	박상현
36	문화톡톡 『창』, 담론과 공감의 네트워크	이기훈·김 성·김정희
41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의자와 권력

박신영_ 소설가, 재단 부운영위원장



몇 년 전의 일이다. 새로 지은 면사무소 준공식장에서였다. 너른 마당에 천막을 치고 면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파출소장, 농협 조합장 등 통칭 기관장으로 이름 되는 분들이 천막 아래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마을 이장을 비롯해 행사에 동원된 지역민들은 마치 사열 받는 신병들처럼 줄을 맞춰 선채 한여름의 뜨거운 땀방울을 새마을 모자 하나로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신병들 중에는 70~80이 넘는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검게 탄 구릿빛 얼굴에 농협 마크가 찍혀있는 녹색 모자를 꼭 눌러쓴 얼굴 위로는 굵은 땀방울이 똑똑 흘러내리고 있었다. 동원된 노인들은 그 흐르는 땀을 장작개비같이 거친 손으로 훔쳐내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한 청년이 주춧측에 거칠게 항의를 했다.

행사를 주관하던 관계 기관에서는 예견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죄지은 사람처럼 굽실거렸다. 청년들 몇 명이 더 몰려들어 주춧측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기관장들의 권위를 내세우던 천막을 걷어내는 선에서 타협을 보고 행사가 진행되었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자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으며 왕실과 귀족 등 상류층에서 그 이용을 제한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힌두 성회를 개최할 때 의자가 거래되는데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하층민은 돈을 주고도 의자에 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왕좌, 권좌는 권력의 아이콘으로서 의자의

빛댄 말이며, 두루 쓰이는 ‘좌장’이라는 표현 또한 의자와 관련이 있다.

왕좌이건 X자형 접이식 의자이건 간에 의자는 안락과 능률을 위해 설계된 발명품이다. 권력자에게 특별한 의자가 헌사 되는 까닭은 태평성대의 길이 열리게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고민하라는 배려이지 거들먹거리면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부리라는 뜻일 수는 없다.

의자의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참뜻은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데 그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었기에 지금까지 의자의 사용 용도가 사람을 저울질하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예술가에게 체험적 단계가 예술의 본질임을 우리가 시인(是認)한다면 예술가의 어깨 너머 저만치 보이는 달그림자 한 줄기도 분명 과거에서 다져진 오늘의 창조 그 한뫼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누구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얕보게 되면 아무리 그의 현재의 위치가 내놓으란 듯 자랑할 만한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 뻔하다. 때문에 과거에 바탕을 둔 현재의 변화가 단단한 균침이 되고 또, 올바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의자를 통해 권력과 지위를 과시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지향하는 미래는 그것을 바탕으로 단상 단하의 평등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제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속살과 미래

올해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창립한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재단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활성화 · 광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 · 지역문화가 활발히 소통하는 교류 매개자 역할 · 시민의 문화권 확대 · 문화민주주의 실현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역문화담론을 통해서, 지난 15년간, 우리 재단이 걸어온 길은 지역의 문화 발전과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씨앗을 뿌렸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때론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매서운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번 『창』 통권 50호 특집 기획은 창립 15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시선으로 재단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미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긴 여정도 두뼉두뼉 걸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을 기억하고 진실한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편집자 주

- 재단 창립 과정과 가야할 미래

김상윤_ 재단 전 상임이사

- 시민의힘과 실천의 시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2020 연극의해 집행위원

- Special thanks to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하자

지형원_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 문화운동, 문화시민 자긍심 거점 되길

조덕진_ <무등일보> 편집부국장 겸 아트플러스 편집장

재단 창립 과정과 가야할 미래

김상운_ 재단 전 상임이사



재단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창』 50호 발간도 축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광주를 ‘문화수도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수도권은 경제수도, 충청권은 행정수도, 경상권은 물류수도, 호남권은 문화수도로 만들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깨고 나라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지요.

나는 당시 광주문화수도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주문화수도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1조원이나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주체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2,000억 원 규모의 광주문화재단을 만들어 정부와 광주시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추진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기문화재단은 1,0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가동되고 있었는데, ‘문화수도 중심’을 조성하려면 2,000억 원 정도의 기본 재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

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여러 선배들께서 ‘호남학진흥원’을 만들자면서 내가 실무 책임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젊은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강하게 권유해 왔습니다. 누차 거절하였으나 서명원 선생님이나 정규철 선배가 직접 찾아와 또다시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남학진흥원 설립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배들은 그 일을 위해 이미 기금을 1,700만 원이나 모아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광주문화재단 설립에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문화재단 설립이 가능하다는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광주문화수도 조성과 호남학진흥원 일을 함께 추진한다는 전제로 선배들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민단체 하나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법인이라면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재정을 확보해야 했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아시아문화 전체를 품어야 하듯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역시 최소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니다. 김하림 교수를 비롯한 창립 발기인들 일부는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2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 후, 문화체육부에 떼를 써보기로 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원 교수님, 이상식 교수님, 서명원 선생님 등 여러 원로분들이 저와 함께 몇 기업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에 걸쳐 모금한 금액은 금호산업 6천만 원, 보성기업 3천만 원, 부국철강 3천만 원, 삼능건설 2천만 원, 금강건설 2천만 원 등이었고, 황영성 화백은 60호 큰 그림을 기증하여 주셔서 1,80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80여 분이 평생회비로 100만 원씩을 내주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보증금 등을 제하고 보니 겨우 1억5천만 원도 못되는 기금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딪혀나 보자고 생각하고 이상식 교수님을 모시고 문화체육부에 갔고, 결국 통배짱 덕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체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선배들과 젊은이들의 의견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호남 차별 철폐 의식이 강한 선배들은 ‘호남’을 매우 강조하였고,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젊은 층은 과거지향적인 이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론회를 열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는 명칭을 확정 지었으나 이 명칭이 크게 공감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방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역이니 지역학이니 하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지역’의 중요성은 세계적 추세가 되었고,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는 명칭은 매우 시의적절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광주-호남-한국-아시아-제3세계로 확대되는 역할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틀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지역은 호남지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확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의 역할도 당연히 광주-호남-한국-아시아-제3세계로 확대되어야 하겠지요. 『창』이라는 제호 역시 아시아와 세계를 내다보는 창 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이 ‘아시아 문화 담론’을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아시아문화 전체를 품어야 하듯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역시 최소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창』이 아시아문화 전체와 소통하고 아시아 여러 곳과 교류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시민의힘과 실천의 시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서 대표, 2020 연극의해 집행위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예술가로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누가 문화를 추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시작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논의와 실행은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면서 주체적인 문화의 동력을 상실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2003년 이후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논의는 그동안의 뿌리 깊은 호남 차별과 5·18민중항쟁으로부터 상처를 껴안은 광주에 하나의 빛으로 다가왔다. 거기에는 국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했으나,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경로를 경험하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라는 참여정부를 맞이하며 지속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었다. 때문에 국가 주도의 문화가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면에서 얼마나 억압의 기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부족했다. 국가가 광주를 문화로서 주목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예향의 도시 광주라는 담론과 특히 5·18민중항쟁으로부터 식민의 경험을 공유한 ‘아시아’라는 논제는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상징성을 획득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을 추동한 것도 바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것으로부터 그 추동을 가속화했다고 생각한다. 1998년 무등산권 문화유산 보존회로 시작한 재단의 설립 논의는 2002년과 2003년 (가칭)호남문화진흥원 설립 추진으로 이어졌고, 2004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설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호남문화진흥과 지역문화교류 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2005년 현재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창립되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민간 재단으로 국가의 주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해 문화의 추동에 방점이 있기 보다는 현재까지는 호남학 연구와 문화 교류와 시민 사업 등을 해왔고, 최근 몇 년 간은 같은 사업 형식이 이어져 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는 지역문화조사·연구사업으로 호남기록문화유산의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 광주역사문화자원스토리텔링, 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문화발신자라는 자기 정체성도 지니고 있지만, 문화 발신은 일방향적으로 될 수 없고,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재단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방법을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학술심포지엄 개최,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사업 등을 수행했고, 지역문화담론사업으로 지역문화포럼 및 문화담론지 『창』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현안 및 이슈에 대응하면서 지역문화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역사문화 시민대학, 테마문화탐방, 문화예술교육사업, 광주정신 계승 시민대학 등을 통해 시민문화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가 문화에 있어 통제로 작동하고, 예술가들과 활동가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사이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는 민간 재단을 통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갑다. 그러나 이는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어 안타깝다. 다양한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문화 자원 발굴의 영역과 방법, 담론의 확산의 방법은 다양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가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그리고 담론의 시대가 아닌 실천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론으로 문화가 꽃피우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 그런면에서 문화자원연구 사업, 학술심포지엄, 문화담론과 포럼 등을 개방적으로 확대하여, 공모를 통

해 다양한 영역의 주제와 주체들을 발굴 확대하고, 동시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문화발신자라는 자기 정체성도 지니고 있지만, 문화 발신은 일방향적으로 될 수 없고,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재단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방법을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발굴되는 분야와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 개발에 있어 방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다양한 방법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기능할 때 보다 다양한 문화적 실천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15년 발걸음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될까. 보다 새롭고 균열을 일으키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발신되는, 상상력이 문화적 힘이 되는, 그리고 노동조건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창작 환경이 보장되는 새로운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찰과 행동이 함께했을 때 새로운 문화가 도래한다고 믿는다. 그곳에 다양한 실천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Special thanks to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추카추카 #엄청맙큐 #마이너스의_영향력과_플러스의_영향력
#그나저나_청년문화허브도_창립_15주년_가능하려나



정두용_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내가 활동하고 있는 (사)청년문화허브(이하 허브)는 문화예술 NGO, 즉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를 주요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 IMF 이후 대학생활을 한 많은 이들이 그렇듯, 대학 때 전혀 운동권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는 그냥 문화예술 마니아였고 ‘운동’, ‘활동’ 이런 부분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문화예술 일은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지만 NGO, 시민단체라는 키워드는 전혀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주제였다. 졸업하자마자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아무런 경험 없이 문화기획사를 차렸다가 1년 만에 문을 닫고, 10년 정도 내공을 쌓는 시간을 갖고 다시 문화기획사를 차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기관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문화예술계의 여러 문제들이 눈에 띄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문화예술 NGO가 광주에 하나도 없던 상황에(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목마름을 느껴 20, 30대 중심의 문화예술 NGO인 청년문화허브를 2013년 설립하게 되

었다.

문화예술계의 젊은 시민단체로 시작한 했지만 대표인 나 또한 문화기획, 창작 작업에 대해서만 경험이 있지 민관 거버넌스, 시민사회 간 연대와 협업 활동, 정책 발굴·제안 작업, 관에 대한 감시와 문제 개선 요구 등 경험해 보지 못한 일 투성이었다. 이런 허브가 시민 문화예술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 지원을 해 준 일등공신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기성 시민문화 단체로서(이하 문맥에 더 어울리는 선배 단체로 표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비밀 언덕’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따로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글을 빌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게 허브 대표로서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감사함은 우리 또한 신생(후배) 단체들에게 똑같이 ‘비밀 언덕’이 됨으로써 값으면 좋으리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히려 요새 허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8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기성 시민문화 단체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비밀 언덕’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이 감사함은 우리 또한 신생단체들에게 똑같이 ‘비밀 언덕’이 됨으로써 값으면 좋으리라.

년 차가 된 허브는 요새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 한계와 마주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문화단체로서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재단의 한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 한계는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시민단체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는, 문화예술 NGO로서 역할의 한계이다. 필자가 8년째 허브에서 활동하며 느낀 건 우리 같은 시민문화예술 단체들은 관에서 진행되는 어떤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막는 ‘마이너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발휘하지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플러스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포럼 등을 통해 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 역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명석을 깔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창작자로서 역할은 거의 없고 비평가의 역할만 한달까. 사실 어떤 기관이던, 어떤 지자체이던 비판할 논리와 문제점은 얼마나 많은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지만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등. 그런데 허브 활동을 통해 느낀 건 우리 시민 사회가 아무리 비판 또는 비난에 열을 내봤자 관은 시스템적으로 쉽사리 변하지 못한다(혹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화예술 NGO들은 평론가, 심판, 코치로서의 역할보다는 선수(player)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 관을 선수로 설정하고 우리가 코치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민 사회가 선수로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고 관은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응원단(supporter)으로

역할 하도록 주문하는 게 서로 우월한 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파트너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전 시대에는 시민사회의 감시·견제·비판 활동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면 지금 시대에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선수로서의 역할로 중심이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는, 시민 문화예술 단체로서 지속성(재원조성, 안정적 운영방안, 활동가 처우 개선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시 허브 이야기를 하자면 허브는 현재까지 지속성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재단 등 기성 시민단체들을 살펴봤을 때, 소위 진성 시민단체로서 지속성의 비전과 방법을 보여주는 곳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기성 단체들이 신규 단체들이 계속 육성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명석을 깔아주었으면 하는 건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롤 모델로서 “저 선배 단체처럼 이렇게 하면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구나.”하는 비전과 희망은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표인 내 능력 부족은 별개로 치고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면 적어도 젊은 문화예술 NGO 몇 개 정도는 지속성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허브를 위해서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부디 가면 갈수록 흥하며 오래가길 기원한다. 재단이 걷는 길이 허브 같은 후배 단체들에게는 이정표와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보낸다. 그런데 과연 재단처럼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후배 단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간지럽다. ♪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하자

지형원_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먼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5주년과 문화담론지 『창』의 5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필자는 재단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사과 후원이사, 평생 회원으로 활동해왔기에 내가 드리는 축하의 메시지는 자축의 의미도 있다.

사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눈물 속에 핀 한 송이 꽃이다. 민간단체의 힘으로 재단법인을 만드는 일도 그렇지만, 지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5년은 지난함의 연속이었다. 신발 끈을 동여 매고 첫 단추를 꿰었던 김상운 선생의 수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자존심 상한 일은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온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회원을 만들고 이사회와 평생회원을 만들어내는 일은 돌밭을 일구는 일에 다름이 아니었다. 평생을 문화기자로 일해 온 필자로서는, 또 ‘문화라는 것이 돈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접’하는 마음으로 뜻을 합하고 소걸음처럼 오늘까지 같이 걸어오고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난 2006년 출범한 뒤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소 창립, 사이버광주읍성 구축사업, 호남기록유산 발굴·집대성 콘텐츠화, 광주역사문화자산 스토리텔링 등 실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해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없었더라면 이 같은 일을 어디서 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해지기도 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민간이 만든 재단법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애정 어린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옛 전남도청 복원 등의 문제에서 보여준 열정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도 ‘아특별 개정안’에 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15년도 지금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기로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면 이제는 문제점 제시의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

민간단체로서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생각하는 '탁상공론'이 아닌 광주라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오랫동안 공부했고 오랫동안 전문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무엇'을 제시해줄 때다.

해주기 바란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전·현직 이 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인재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충분히 광주에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라는 말이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 포럼의 멤버 가운데도 상당수의 위원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구성원들이다. 이 같은 인재풀을 풀가동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민간단체로서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생각하는 '탁상공론'이 아닌 광주라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너무 지역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항상 열린 눈으로 멀리 보고 밑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수많은 토론회나 세미나 워크숍 등에 가보면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차별화, 선택과 집중, 특징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한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말은 무엇으로 차별화하며 무엇을 선택해 집중하며, 무엇으로 특징을 살릴 것인가에 목이 말라 있다. 목마른 사람에는 물이 시급하다.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고 오랫동안 공부했고 오랫동안 전문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무엇'을 제시해줄 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시하는 단계를 벗어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재단, 그리고 80여 개나 되는 단체와 연대하는 책임있는 단체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사람의 지휘자가 바뀌면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바뀌는 것처럼 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문화전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내는 것도 정부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내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일도 지역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가끔 발표하는 성명도 단순한 입장표명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바람이다. 시민연대에는 80여개의 비중 있는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0개의 단체에서 1명씩만 참여해도 웬만한 회의실은 가득 찰 터인데 늘 보이던 몇몇 사람들만 눈에 띄니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다. 독창보다는 합창이 더 무게 있고 파괴력이 크지 않은가. 전문가들은 문화정책에 힘을 쏟고 일반 회원들은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문화향유의 고객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청탁한 원고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재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다 보니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다. 끝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이란 말을 전하며 맺는다. 우리 함께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걸어가자. 예리한 통찰력으로 지역을 꿰뚫어 보면서 부단히 솔루션을 제시하는 재단이 되어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문화운동, 문화시민 자긍심 거점 되길

조덕진_〈무등일보〉 편집부국장 겸 아트플러스 편집장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립 15주년 소식을 듣고 문득 뉴욕을 생각했다.

어떤 유명세에 기대졌다가 하는 허위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존심,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다. 문화예술이나 도시 관광 등을 생각하면 이 도시가 생생히 떠오른다. 관찰자의 시선에 비친 뉴욕의 문화·관광은 그곳 시민들의 향유와 자부심의 성과물로 비쳤다.

그 곳에는 수많은 도시 프로그램이 널려있다. 뉴욕시 관광안내 코너는 풍성하다 못해 넘쳐나고 맨해튼은 물론 부르클린, 브롱스까지 거의 1년 365일 다양한 행사들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로드웨이 공연부터, 구겐하임, 모마, 휘트니,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미술관·박물관에 셀 수도 없이 널려있는 갤러리 전시까지 예술 행사만도 다 거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여기에 게이 퍼레이드와 같은 정치 사회적 색채가 짙은 축제부터 할로윈 등 서양전통이 배어있는 축제까지 셀 틈이 없다.

이중 진짜는 뉴욕시 관광코너에 이름을 알리지 않은 시민주도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들이다. 인증샷이 목적이 아닌 이들이 일부러 찾아나서는 광경이기도하다.

도시 구석구석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는 워킹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니 마을축제들은 뉴욕의 명물 관광코스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성과 활기의 배경에 뉴욕시민들의 자부심이 자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킹투어나 맨해튼 한 복판 뉴욕공공도서관 뒷마당-브라이언파크-에서 전개되는 주말의 각종 문화행사 등은 뉴욕시민들의 자부심을 보여준다.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기획하고 자원봉사자로 행사를 이끈다. 레바논 출신 한 교수의 말처럼 미국은 신생국가로 역사라고 할 것도 없는 데(인류문명을 일으킨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중동에 비교하자면 말이다.) 워킹투어 안내인이나 각종 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은 대단하다. 그 대단함이란 도시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소속감에 있다.

이 같은 뉴욕 풍경은 남일 같지가 않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광주시민들의 예술사랑은 여타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번듯한 사무실 뿐 아니라 식당, 분식집, 이발소 등 어디를 가나 그림 한 점 만날 수

있다. 풍류가 넘치는 도시다. 이곳 시민들의 '각별한' 예술사랑은 '각별함'이 아니라 '일상'이었는데 경이로운 놀라움이 있다.

허나 반면에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지역 문화예술 환경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자타가 인정하는 예술의 도시,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삶은 처참한 지경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광주 전업예술인 월 소득은 전국 예술인 평균의 40%수준인 152만에 불과했다. 예향,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숱한 형용어가 넘쳐나지만 그 도시는 예술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는 경제가 예술을 떠받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민간차원 예술 활동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광주시나 정부지원 프로젝트로 연명되는 수준이다. 아트페어만 해도 서울은 KIAF를 비롯해 정부 지원을 받는 페어는 몇 개에 불과하고 10여개가 넘는 페어들이 민간자본으로 전개되고 있다. 부산은 5개의 페어가 열리지만 부산 시 지원은 한 기관 최고지원액이 3억 원에 불과하고 대구시 역시 1억 5천을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광주는 지난해까지 한 행사에 연 7억 원,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페어는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대구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뒤떨어져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의 열악한 경제 여건이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서 문화예술 정책의 공공성을 비롯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역할과 책무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재단은 지역에서 전개되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예리한 제언을 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존재 자체로 중요하다. 시민들의 예술향유 수준은 높고, 현실은 척박한 상황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은 염증을 동반한 허무주의나 좌절을 넘어 미래로 나가는 주요 관문이라는 점에서 재단은 존재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재로 재단은 그러한 역할을 꾸준히 실행해오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문화이슈에 대한 포럼과 토론을 전개하고 문화담론지 『창』을 통해 지역 문화이슈들을 점검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문화계가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해가며 내일을 함께 도모해가는 여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도맡기도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상 정립 과정에서 재단이 보여준 과정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지금 돌아봐도 아슬아슬한, '박근혜 정권의 국책사업'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대응한 과정은 지역문화단체의 존재 증명에 다름 아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문화의 비전을 잃어내고, 지역사회 의견을 모으고, 이를 지역정치권과 연대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낸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문화계의 작은 역사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광주시(광주문화재단을 포함해) 문화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역문화조사·연구나 시민문화교류 등 여타의 사업들은 다양한 문화단체들이 해나갈 수 있지만 문화정책에 대한 전문적 비판과 제언은 독보적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재단의 전문성에 기반 한다. 문화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5년여의 시간 동안 전문성은 깊이와 공감의 폭을 넓혀왔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지역 문화계 이슈들에 대한 공론장의 무대는 지역사회, 문화계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같은 현실적 접근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문화현실에 대해 단염증이나 좌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가꿔나가는 무대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하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인력부족 탓이긴 하지만 재단이 문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향후 보강해야할 부문으로 꼽힌다. 재단이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활력, 시민들의 자부심 등의 원천으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화인 탐구생활



소리로 마주하는 예술인의 삶

— 인고(忍苦)로 피워낸 시대의 소리, 道輝 이복순 명창을 만나다

인터뷰어 신혜람
인터뷰이 이복순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술은 가장 길게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고 하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판소리를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데 앞장서려고 노력중입니다.

기나긴 장마가 끝이 나고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뚫고 북구청 근처에 있는 도휘 국악 연구소에 갔다. 연구소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다양한 악기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들이 아쟁을 연습하고 있었다. 한박자 한박자 서툴게 짚어가는 소리였지만 제법 고운 소리가 났다. 연습이 한창인 학생들을 지나 이복순 명창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더운데 찾아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밝은 미소로 반겨주는 얼굴은 배우와 같은 질고 풍부한 느낌이 났다. 얼굴로 감정을 표현해내는 사람임이 단번에 느껴졌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멋드러진 다기(茶器)에 우려주신 녹차와 함께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신혜람(이하 신) 독자들께 명창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복순(이하 이) 저는 예술인으로서 우리의 소리를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국악인으로서 다소 늦은 고등학생 때 국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할머니께서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하다 보니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 부모님께서 트로트를 굉장히 잘 부르셨어요. 아버지 형제가 4형제였는데 할머니께서 노래자랑을 시키셨어요. 할머니의 취미셨죠. 할머니께서 항상 부모님부터 노래를 시키곤 하셨죠. 저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학교 노래자랑에서 많이 불렀어요. 노래자랑에 나가려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잖아요. 노래 연습을 하면서 노래 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국악을 전공삼아 전남대 국악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도립 국악단에 창단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에 시립 국악단에 들어가 21년간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았죠.

신 고등학생 때 시작하셨으면 다소 늦은 나이에 입문을 하셨는데 배울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스승님께 배울 때에 그 음정이 그 음정 같은데 스승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깐 너무 어려웠어요. 스승님의 음을 녹음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 음을 따라하려 목청 터져라 연습했죠. 그러면 스승님은 “음정 하나가 머리카락 사이여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정을 맞출 때까지 또 쉬지 않고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음을 깨달으면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느끼고 나서 소리의 매력에 빠져 살았죠.

신 영화 같은데서 보면 폭포수 떨어지는 곳에서 득음을 하던데, 그렇게 연습하시나요?

이 그럼요. 여름이나 겨울에 합숙해서 폭포수 떨어지는 곳에서 득음을 해요. 합숙을 한 10일~15일 정도 하는데 그 때 배운 공부가 거의 반 년 치 공부를 배워요. 그러니 그 시간을 절대 놓칠 수 없죠. 하루에 잠잘 때, 밥 먹을 때 빼놓고는 소리를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면 목도 붓고 머리도 아프고 말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소리를 또 연습하면 목이 트이고 호흡도 진정이 되어서 나중엔 표현도 정말 잘 됩니다.

신 해금소리와 판소리가 울려 퍼지니 정말 좋아요. 이 도휘 국악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이 도휘는 인도할 도, 빛날 휘.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이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요. 이곳은 처음엔 저의 개인적인 연습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는 모두의 공간이 되었어요.

소리는 며칠만 연습을 안 해도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매일같이 연습할만한 공간이 필요했어요. 겨울을 보면서 감정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그러다 점점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 함께 쓰는 공간이 되었고 지금은 해금과 아쟁을 가르치시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의 연습하는 소

리,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정말 행복해져요.

신 요즘 송가인 씨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판소리를 배우다가 트로트를 소화해서 부르니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를 배우러 올 것 같아요. 판소리의 높아진 관심이 느껴지시나요?

이 트로트가 유행이 되면서 판소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트로트 가수도 이곳에 와서 판소리를 배우고 통기타를 하시는 분도 배우러 옵니다. 또 주부들도 노래방에서 목소리를 뽐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노래를 못하던 주부도 1년을 배우고 나면 트로트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해요. 판소리에서 복식호흡을 배우고 우리 민족의 ‘한과 흥’을 잘 녹여내니 어떤 노래든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배우러 와요. 7살 난 아이가 있는데 춘향이가 입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인 쑥대머리를 가르쳐줬어요. 그 어린 것이 슬픈 대목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하지만요. 저의 눈짓, 손짓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예쁘고 기특하죠.

다양한 분들이 판소리를 배우러 오다보니 처음부터 판소리를 배우면 많이 어려워해요. 또 어려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가부터 시작을 해나가요. 단가는 짧은 소리로 판소리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데 이것부터 연습해나가서 점차 실력이 늘면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판소리 한 곡을 완창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소리를 낼 때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처음에는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 하듯이 음정만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색깔을 입히듯이 감정을 입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소리에 아주 예쁜 그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 그 중 가장 좋아하시는 판소리가 있으신가요?

이 저는 「심청가」를 가장 좋아해요. 「심청가」는

가장 먼저 배운 곡이기도 해요.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려면 합숙이 많다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청가」를 배울 때 그렇게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찡하고 애절해진 그 마음을 「심청가」에 담아 불렀죠. 저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여서 「심청가」가 제일 좋습니다. 또 「심청가」로 대통령상도 수상했어요. 예선에는 맹인잔치를 열고 뽕덕이가 도망가고 심봉사 혼자 올라가는 그 대목을 했고, 본선에서는 심청이가 삼백 석에 팔리기로 해서 죽으러 가는 대목을 했어요. ‘범피중류’로 상을 받았죠. 「심청가」는 저랑 아주 인연이 깊은 곡이죠.

신 서양음악과 접목을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해보고 싶은 공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적이 있어요. 정년을 하고 나면 요양원에 찾아가서 함께 공연을 하자고요. 소외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판소리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판소리를 한 시간씩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판소리를 단순히 국악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의 차원을 넘어서 치유라는 목적을 두고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해보고 싶어요.

신 판소리가 치유의 음악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에서도 판소리로 치유되었던 분이 계신가요?

이 한 어머니에게 판소리를 지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하니 “선생님, 내 삶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평생 살면서 아들 둘만 보고 살았는데…… 선생님 이제 둘째도 장가를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 슬픈 감정을 판소리에 녹아내니 두 달 만에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 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죠. 판소리는 음악을

넘어 가슴 속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노래구나.
 또 판소리공연 요청이 들어와서 진주에 갔어요. 그런데 진주 의료원 건설을 두고 진주, 하동, 사천이 공론화하고 투표하는 날이었어요.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다들 웃음기는 없고 뿔난 상태였죠. 싸움 날 것 같았어요. 거기서 판소리를 하라는데 참 갑갑하더라고요. 일단 앞에 나가서 한 마디 했죠. “판소리는 본디 두레에서 만들어진 음악이고, 품앗이를 하던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노래입니다.” 하고 판소리를 했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깐 안 따라하실 줄 알았는데 한 목소리로 따라하시더라고요. 뿔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 같이 웃으면서 판소리를 불렀어요. 판소리 하나로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죠. 판소리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신 한 평생 판소리를 해오셨는데 판소리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으셨나요?

이 예술은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어렵습니다. 판소리를 공부하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음, 저 음 분간이 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죠. 그때마다 레슨이 없어도 이 공간에 와서 혼자 연습하고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합니다. 한 음을 가지고 또 파고 또 새기고 그걸 반복하는 거죠. 울퉁불퉁한 돌을 자꾸 다듬어야지 예쁜 보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예술이라는 것을 갈고 닦아야 지만입니다. 예술은 죽을 때까지 갈고 닦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는 제 애인이자 친구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요.

신 오랫동안 공연을 해오셨는데 아직도 무대에 올라가실 때 많이 긴장하시나요?

이 네네. 훨씬 더 긴장합니다. 예전에 대통령상을 받는 대회에서 가사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다리가 풀리고 머리가 새해아졌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공연이 하나 생기면 연습을 주구장창 합니다. 가사를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소리 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거울 보면서 감정연기도 하고 계속 연습



판소리 「홍보전」 中

해요. 이렇게 연습을 해도 항상 공연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제 명창이 되니 제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돼요. 그래서 무대가 크건 작건 준비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나야지 긴장도 풀려요.

신 판소리의 가장 큰 매력 하나를 뽑아주신다면?

이 판소리는 삶 그 자체예요. 삶 그 자체를 예술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판소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회를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즐기고 따라 부르기에 결코 어렵지 않아요. 쉽고 누구나 다가설 수 있는 음악이 판소리라고 생각해요. 판소리에는 희노애락이 다 녹아져있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판소리에는 뚜렷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있어요. 판소리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녹아져있으



판소리 「흥보전」 中

니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죠. 실은 소리를 이렇게 오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배움이나 득도에 길에서 고통도 있었고 현실 속에 말하지 못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 소리와 함께 승화되어 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삶의 승화! 판소리가 가진 큰 매력이지요.

신 판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문화강좌도 하고 계시는데 판소리 부문에서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판소리를 배우는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국악단이 많이 생긴다면 판소리를 가르치고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꿈과 취업이 따로인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많이 취소된 상황이다 보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고요.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것이겠지만 간간히 하던 공연마저도 취소가 되니 밥도 못 먹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통해 일해 나가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에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니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재능이 타고난 아이들이 많은데 배워도 먹고 살기 힘들니까 하다가 마는 친구들도 많으니 얼마나 속상합

니까. 그래서 또 무료로 강습을 해준다고 하니 미안해서 못 오더라고요. 또 광주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들이 많아 재능 있는 친구들이 멋지게 빛났으면 좋겠는데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거나 기회가 적어 서울이나 타지로 가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예술인들의 기초적인 복지나 지원이 된다면 우리의 음악을 짚어지고 갈 미래의 꿈나무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참 많이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신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술은 가장 길게 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고 하셨단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기에 판소리를 알리는 데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아,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릴 꿈나무들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자가 승자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기준과 잣대, 심지어 가치관마저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고 쉽게 질리는 현대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오래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경이로운 일이기 까지 하다. 짝패라는 영화의 한 대목처럼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것이 아닌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라는 말이 나이에 숫자가 더해 갈수록 결코 쉽지 않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인간에게 오래 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버티는 ‘존재’의 의미를 넘어 ‘생존’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참음과 견딜과 해탈이 여름철 비와 햇살처럼 반복해서 찾아오는 지 주리고 서러운 꿈을 좇아본 이들은 알 것이다.

요즘처럼 질병과 재해가 빈번하여 인간의 능력과 힘은 작고 텅없이 느껴지는 때, 이복순 명창의 후대를 위한 생각과 마음은 이 시대, 이 시국 속에 지녀야 할 필수적이지자 최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도휘’라는 호처럼 많은 사람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광선이 지속적으로 판소리계에 비춰주길 기대해 본다. ♪

물의 참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 장성군 관수정(觀水亭)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올여름 장마는 너무 길었다. 50여 일이 넘는 동안 습도 높은 더위와 함께 폭우를 여러 번 겪어야 했다. 특히 자연재해가 드물었던 호남지역에 유례 없을 정도로 폭우가 내려 지천은 물론 강물도 넘쳐흘러 논밭과 집이 물에 잠기는 등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곳곳에 산사태로 인해 흙이 무너져 내린 모습은 마치 허리가 베인 것처럼 보였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다. 문제는 지금 땅의 생김새는 모두가 빗물이 만들어낸 작품임을 쉽게 놓치고 있다. 산의 능선과 계곡, 길 등은 수천 년 동안 빗물이 만들어낸 퇴적품이다. 단지 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산과 강을 파헤친 결과 자연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 찾아갈 누정은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자리한 관수정(觀水亭)이다. 조선 전기 지지당 송흠(知止堂 宋欽, 1459~1547)이 말년에 고향으로 내려와 세웠다. 누정을 세운 시기는 송흠이 1539년 병조판서를 사직한 이듬해 82세 되던 때에 고향마을과 1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용암천 주변에 지었다고 한다. 현재의 누정은 여러 번 중수를 거친 것으로 처음의 모습과는 다



관수정 현판.

른 분위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누정의 이름은 ‘멈춤을 안다’는 뜻이다. 여기서 멈춤은 흐름을 멈추는 것으로 흐름의 대상은 곧 물이다. 『노자(老子)』 44장에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따라서 오래 갈 수 있다.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라 하였고, 『대학(大學)』에서도 ‘멈춤을 알아야 뜻을 정할 수 있다.知止而后有定’고 하여 멈춤을 아는 것이야말로 선비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임을 강조했다.

관수정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이다. 왼쪽과 가운데는 마루로 놓고, 오른쪽에 방 한 칸을 들였으며 그 앞에 뒷마루를 뒤편 마루와 이어지도록 짜 맞춘 했다. 마당에 들어서면 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붓끝을 힘줘 누른 채 원필(圓筆)

로 시작하는 굽은 흐름이 송흙의 강직한 성품을 연상케 한다. 전주 출신 강암 송성용(剛菴 宋成鏞, 1913~1999)이 썼다. 마루 위에는 서른 개의 현판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그중 송흙이 직접 쓴 『관수정기(觀水亭記)』를 읽어보자.

나는 평생 누정을 많이 구경했다. 그중 지세가 높고 시원하며 산수로 둘러싸여 멀리 바라만 보면 마음과 눈을 상쾌하는 곳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저 깊은 산과 험한 골짜기에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다가 산기슭 끝에 닿아서 깊은 웅덩이를 이루고 널리 뻗었으니 저 깊고 넓은 양자강과 한강 같은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다행히 그런 곳을 얻었으니 어찌 하늘이 아끼고 땅이 숨겨둔 후에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두어 칸의 누정을 시냇가에 얹어 만들었으니 대체로 물가에서 관람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 하늘의 한 가운데에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황금빛과 푸른빛이 물에 떴다가 잠기곤 한다. 물 위에 바람이 불면 비단결에 무늬가 생겨난다. 보슬비가 내리다가 잠깐 개이면 짙고 옅은 그림자가 일렁인다.

바람이 불다가 물결이 고요하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비늘까지 세어볼 수 있다. 아침 햇살과 저녁노을에 기이한 모습과 만 가지 형상, 이는 모두가 누정의 아름다운 절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깥 모습에 불과하다. 그 물결을 보면 물에 근본이 있음을 알며, 그 맑음을 보면 마음의 사악한 점을 씻을 수 있으니 그런 뒤에야 가히 물의 참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관수정 전경.

자손들에 여기에 힘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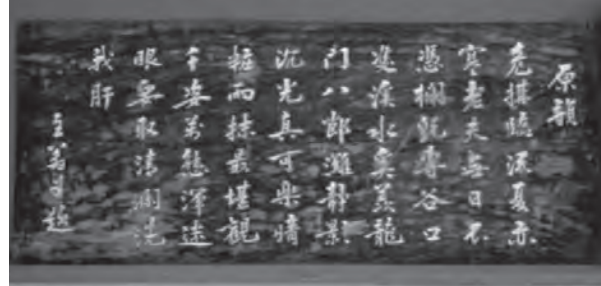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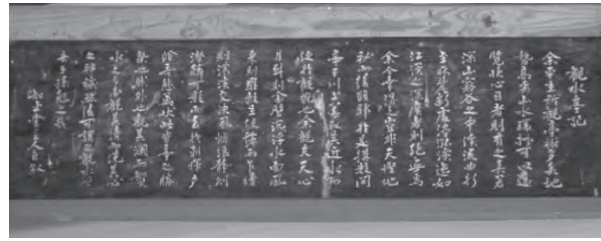
“余平生所觀亭榭多矣 地勢高爽 山水環拱 可以遠覽 快心目者則有之 矣 若深山窮谷之中 溪流曲折 至林麓斷處 滄泓演迤如江漢之深廣者 則絕無焉 余今幸得之 豈非 天慳地秘 而後顯耶 於是 構數間亭于川上蓋取其近水 而便於觀翫也 余觀夫天心 月到 則金壁沉 浮水面 風來 則羅縠生紋 薄雨乍晴 濃淡交映 風恬浪靜 則鱗鱗可數 而至於朝暉夕陰 奇態萬狀此 皆亭之勝槩也 然外也 觀其瀾 而知其水之有本 觀其清 而洗其心之邪穢然後 可謂之觀水也 吾子孫勉之哉”

- 『知止堂遺稿』 券二

물의 참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물의 근본을 먼저 탐구해야 하며, 그로 인해 마음의 사악을 씻어내어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송흠의 당대는 연산군(燕山君)의 학정(虐政)으로 인해 불우하였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선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송흠이 지은 「관수정원운(觀水亭原韻)」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危構臨流夏亦寒	물가에 닿아 우뚝한 집 여름에도 서늘하니
老夫無日不憑欄	늙은이는 날마다 난간에 기댄다네
既專谷口雙溪水	골짜기에 두 시냇물 차치하니
奚羨龍門八節灘	어찌 용문의 팔절탄 부러울까
靜景沈江真可樂	고요한 그림자 물에 잠겨 참으로 즐길 만하니
晴粧雨抹最堪觀	날 개이면 비에 씻긴 모습 아주 볼 만하네



위 관수정기 아래 관수정원운

千姿萬態渾迷眼	가지각색의 모습들이 눈을 어지럽히지만
要取清瀾洗我肝	맑은 물결을 길어서 내 마음 씻고 싶네

관수정 옆을 흐르는 용암천이 중국 황하 상류인 용문에 못지 않을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는 시인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용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용문(登龍門)’과 같은 뜻으로 물결이 너무 세차서 물고기조차 역류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일 이 계곡을 오르면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용이 된다고 할 정도이다. 이쯤에서 송흠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용암천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혼탁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싶은 속내가 물결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듯하다.

송흠의 「관수정원운」을 따라 임억령(林億齡, 1496~1568),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소세양(蘇世讓, 1486~1562), 김안국(金安國, 1478~1543), 홍언필(洪彦弼, 1476~1549), 성세창(成世昌, 1481~1548), 신광한(申光漢, 1484~1555), 정사룡(鄭士龍, 1491~1570) 등 후배 문인들의 현판이 걸려 있다. ♪

‘광주 시립 역사민속박물관’ 개관 이후의 소회

천득염_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얼마 전 기존의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을 크게 수리하여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였다. 중앙정부로부터 큰 예산을 받아 노후된 건물을 수리하고 남도 민속 분야로 한정되었던 그간의 전시물을 정리하고 새롭게 광주읍성 관련 내용을 재현하여 광주 근대역사 분야를 더한 모습이다. 그러나 재개관 이후 이 정도의 시설로 광주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가능한가라는 비판적 의견과 함께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광주역사박물관 건립에 중지부를 찍어 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실 지난 해,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박물관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호도 조사가 있었다. 기존의 민속박물관은 1987년 개관하여 30여년이 넘게 남도민속에 대한 수집 연구 전시라는 나름의 정체성을 지닌 박물관으로 자리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하였고 좁을 뿐만 아니라 민속 자료만으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소위 전문가들은 다른 이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선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중의적이고

막연하다. 또한 광주역사라는 거대한 담론을 포함하는 전시물, 전시 공간, 전문 인력, 행정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시립광주박물관’이라 명명하여 선명성을 갖고 유사한 시설들을 총괄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박물관의 책임자도 외부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의외로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을 선택하였다. 역사와 민속을 공유하면서 역사라는 새로운 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광주시가 관장하는 전시, 혹은 박물관공간이 아마도 20개 정도나 될 것이다. 그간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왔던 입장에서 개관이후에 제기된 문제들을 제안을 한다.

어떤 공동체의 자긍과 자존은 문화적 실체로서 집약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광주를 전통적 예향이라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문화도시다운 광주를 만들어 가고 있고 실제적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광주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았다. 몇

광주가 진정 문화도시라면 시민들의 역사적 자존을 심어주는 과업이 무언가를 알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보다 탄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시장 때 이룬 업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 이를 시작하는가이다.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대 시장 후보들은 모두 공감은 하였지만 언제나 막상 당선되고 나면 뒷전으로 밀어 놓은 현안이 바로 역사박물관이었다. 다른 현안사업도 많고 힘든 시정이 차서 넘치겠지만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시립민속박물관'을 '시립 역사민속박물관'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민속'을 '역사민속'으로 바꾸었고, 공간의 일부를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역사박물관은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을 역사박물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좁고 전시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여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임시적인 역사박물관의 기능을 이곳에 잠시 부여하고 장차는 150만 도시의 격에 어울리는 자궁의 장소로 새로운 역사박물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미 '국립 광주박물관'이 있는데 왜 또 시립 광주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기능을 갖는 박물관임을 알아야 한다. 국립 광주박물관에는 광주와 관련된 공간이 거의 없다. 신창동유적과 신안해저유물 관련 전시 이외는 기획전시 정도이다. 시립 민속박물관은 남도 민속자료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주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독립된 광주역사박물관이 필요한 것이다.

전시품이 없다고 한다. 왜 없는가? 여기 저기 늘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다 보면 나중엔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 감히 단언한다. 고대 선사유적에서 비롯하여 신

라, 고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현대, 심지어 산업시설로서 기아자동차까지 전시대상으로 한다면 방대한 자료가 된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조선시대 광주목의 관아 누각인 희경루를 중건하려고 하는데 '희경루 방회도'라는 당대의 그림을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의병 관련 전시품을 모으고 의병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 건립 예산이 없다고 한다. 민주적인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시민의 의지가 강하면 지원을 해준다. 문제는 시도하지 않음에 있다. 그래서 새롭게 미래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나가는 것이다. 어찌 몇 년 만에 큰일을 해내겠는가? 우선 범시민적 추진위원회 설립과 정기적 준비모임을 통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면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전시물들을 모으면서 어떻게 물리적 공간을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벽돌 한 장이라도 내 놓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가야 한다. 지혜를 모아 천천히 새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의 박물관을 찾아나가야 한다.

광주가 진정 문화도시라면 시민들의 역사적 자존을 심어주는 과업이 무언가를 알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보다 탄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시장 때 이룬 업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 이를 시작하는가이다. ♪

독자의 눈(창)을 들여다보자

백승현_ 잡지 『대동문화』 기자



잡지 발행에는 정석이 없다. 그래서 ‘잡다하다’는 뜻의 잡지(雜誌)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잡지 발행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편집기획 회의부터 원고청탁, 취재, 기사 쓰기, 원고 교열, 편집 디자인, 광고 유치, 인쇄, 제본에 발송과 독자 관리까지 엄격한 시스템과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잡지 발행이다.

여기에 잡지 발행에 드는 비용만이라도 건질 수 있게 광고와 구독자 수를 갖추기란 더 난망한 일이다. 그러나 잡지 발행은 매번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 더구나 잡지는 잡지가 다룰 수 있는 성격과 정체성이 있어 ‘문화 예술’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잡지라면 더 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

문화산업과 문화 관련 사업이 언제는 돈 버는 사업이던가? 그런 잡지 발행을 위해 사명감과 의무감에 불타서 덩벼들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문화를 담론으로 풀어나가자?

문화담론지 『창』은 물론 이런 영리 목적의 잡지사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아니다. 2005년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이 설립되면서 발간되기 시작해 이제 15년이 지났고, 또 통권 50호를 기록했으니 그 간의 고통과 희생과 보람이 눈에 선하다.

문화담론지 『창』은 문화담론지라는 성격 규정에 발간 철학이 드러나 있다. 지역의 문화 이슈와 정책 진단 및 향후 지역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담론의 형태로 공평하게 담아내겠다는 것이다.

재단의 창립 정신에도 이 선언은 반영되어 있고 재단이 해온 일들에서도 이런 정신은 깃들여 있다. ‘광주 역사문화 자원 스토리텔링’ 사업이나 ‘호남 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 ‘사이버 광주읍성 구축 사업’,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연대 사업’ 등의 궤적도 마찬가지다.

문화담론지 『창』은 광주의 문화 정책과 문화 비전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대안 잡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온 데에 그 공이 있는 것이다.

100호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정책 대안 잡지가 얼마나 재미가 있을 것인가? 필진들도 그렇고 공공기관과 문화유관 기관도 구미가 당기는 내용을 담는 잡지는 아니다. 무료로 발행되어

독자들이 잡지를 보는 것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이다. 독자 발굴과 독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잡지가 성공할 수는 없다. 전자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의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독자들의 눈을 들여다보자.

배포되는 잡지라서 '유료화를 모색해보세요'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60호, 70호, 100호의 『창』이 지속적으로 발행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선 재미를 주는 기사 꼭지를 더 수록하라는 것이다. 정책 대안 잡지라고 해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논설조의 기사만 수록할 수는 없다. 문화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데, 문화 잡지를 읽는 문화인들이 즐거운 지식,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집기획자들이 새로운 테마의 기사를 기획해야 한다. 우리 광주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관심사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나 활동가가 의의로 많다.

두 번째 청년 문화인들을 잡지에 많이 데뷔시키는 취재 기사를 더 도입하라는 것이다. 우리 광주는 제도권 문화인들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문화 마인드를 기대할 수 없고 광주의 문화 비전을 맡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에 거론하겠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을 텐데, 청년 문화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재단이 해주기를 바란다. 청년 문화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기사를 기획해야 한다.

『창』은 광주 문화를 아시아문화와 만나게 만드는 브리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한국잡지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디지털 잡지화 사업'이나 '번역 지원 사업', '취재 지원 사업', '우수 콘텐츠 지원 사업', '독립잡지 지원 사업' 등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어떤 잡지든 독자 관리가 곧 광고 관리이자 잡지 발


전의 힘이다. 독자 발굴과 독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잡지가 성공할 수는 없다. 회원과 독자가 연계되어 있는 재단의 구조는 충성도 높은 독자가 많은 반면에 새로운 독자를 개척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더 독자 관리를 하라는 주문을 넣고 싶다. 독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온라인으로든지, 오프라인으로든지 늘 고민을 해야 한다.

새로움을 바라보는 『창』을 위해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저는 힘겨운 시간 없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고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이겨내고 창의와 열정으로 자기 세계를 일궈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문화담론지 『창』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발걸음을 남기고 왔을 것이다. 그 진보가 광주 문화예술인들과 공감의 장을 형성하고 광주의 문화 발전상을 견인하는 미래 정신을 유지한 채로 통련하기를 바란다.

2003년 처음 문화 단체 직원이 되고 더불어 문화잡지의 취재 기자가 된 필자에게 편집장이던 선배가 이렇게 말했다. "항상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 우리는 항상 새롭게 생각해야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제 풀에 쓰러지기도 한다. 성급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독자들이 잡지를 보는 것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독자들은 전자 정보 형식의 간행물을 원할 것이다. 전자 정보 시대, 디지털 시대의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독자들의 눈을 들여다보자. 

광주시민회관의 재탄생, 100일 들여다보기

정성구_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광주시민회관의 재탄생

광주의 도심, 광주공원에 자리 잡은 광주시민회관. 누군가에게는 만화영화를 틀어주던 영화관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식장이었을 게다. 계림동 시청사가 좁았던 시절, 국경일 기념식이 열리던 공간이었으며, 반공교육이 한창이던 시절엔 웅변대회가 열리던 공간이기도 했다. 이렇다 할 문화공간이 없었던 그 시절, 만화영화를 보러 가는 시민회관 나들이는 어린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결혼식만 해도 한해 약 300여 쌍 치러냈다고 하니 그 당시의 영화가 대단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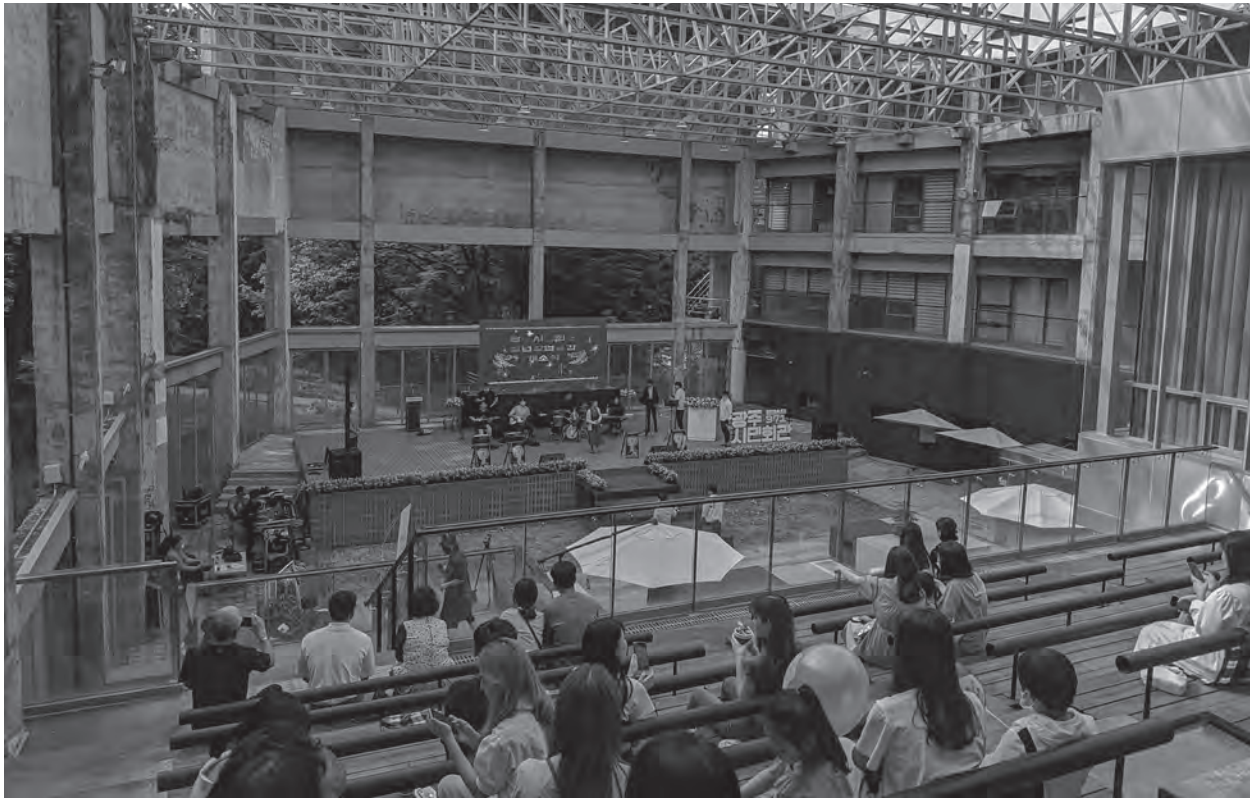
이처럼 광주시민들과 함께 50년을 보낸 시민회관은 2019년 새로운 공간 기획과 리노베이션을 거쳐 2020년 33명의 광주 청년들이 광주의 상품과 콘텐츠(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청년창업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층에 카페와 베이커리, 청년 메이커스 제품 판매대, 꽃집 등이 자리했으며, 2층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각종 교육과 영화상영이 가능한 공연장, 소규모 전시관으로, 3층은 청년창업자들의 공유 사무공간으로 변모했다.

건축적 의미와 역사

시민회관은 1971년 광주 최초 공공복합문화시설로 건축되었다. 부지 1,860㎡에 연면적 약 3,8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고, 664석의 공연장, 2개 홀을 가진 예식장 등을 갖추었다.

전남대 임영배 교수에 의해 설계된 이 작품은 장소성의 해석에 따른 절제된 파사드, 기능에 충실한 형태 미 등을 추구했으며 당시로는 드문 원형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한국건축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일제강점기 신사가 들어섰다가 해방이후 현충탑과 4·19의 거 기념비 등이 남아있는 다사다난한 현장이라는 장소성에 대해 건축가는 시각적으로 편안한 곡선의 파사드와 원형 창, 자연과 순응하는 높이와 외관으로 당대에 남을 멋진 작품을 남겼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도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뛰어난 근대건축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민회관은 80년대 남도예술회관, 90년대 문화예술회관과 더불어 광주를 넘어 호남지역을 통틀어 중요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빛고를시민문화관등 현대식 시설의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점차 활용도가 떨어



광주시민회관.

어지게 되며, 급기야 2010년에 이르러 철거위기를 맞는다. 아니 실제 철거방침이 떨어지고 철거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지역의 교수들과 건축가들은 이 건물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며 지키고자 하였다. 결국 시민회관은 화장실 벽과 계단의 일부가 철거되던 와중에 극적으로 회생한다.

보존된 시민회관은 리노베이션을 위한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2011년 김광수 건축가에 의해 재해석되어, 2014년 연면적 약 4,400㎡의 규모로 재탄생한다. 시민회관의 상징적 기호가 된 대강당의 철골 프레임은 이 리노베이션의 결과이며, 이때 야외무대와 실내 소극장 등이 함께 계획되었다.

하지만 3년간의 리노베이션을 거친 시민회관은 그 공간의 품질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다. 사실상 빈 공간으로 방치된 것이다. 명확한 활용계획이 없이

문화 재단에 위탁된 시설은 결국 비둘기들의 화장실로 전락하였고,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시 당국은 이 의미 있고 제법 괜찮은 공간을 시 사업소의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만다.

시민회관이 가진 공간의 가치와 의장적 아름다움을 안타까워하던 지역연구자들은 그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청년문화 플랫폼, 근대역사문화관, 시민예술촌, 심지어 미디어아트 AMT 센터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안해 왔다. 이는 공간이 가진 가치와 문화적 에너지가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소개

‘공유재산 활용 사회 실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다. 사업을 맡게 된 우리

는 시민회관이 가진 공간의 아우라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창업 콘텐츠들이 발굴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장소 기반 창업’ 즉 시민회관에 어울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제안해 주기를 원했다. 이것이야말로 그간의 창업과는 다른 광주형 로컬 콘텐츠를 통한 창업이며, 이를 통해 광주시민회관이 지역의 재생 거점으로 자리 잡고, 청년을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50년 역사성과 공간의 중요성을 담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인 ‘광주시민회관 활용 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와 별도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민회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였고, 여기에 공간 기획자, 공연·전시 창작자, 음식·공예 창업자 등 다양한 실행 주체가 참여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여기서 수렴되고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는 1971’이라는 주제의 혁신캠프를 개최했다. 2019년 7월 2박 3일간 개최된 혁신캠프에서는 시민회관이라는 공간의 이해, 지역에 대한 비전, 창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로컬기반 창업콘텐츠의 발굴과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 멘토링을 거쳐 12월에 문화 분야 4개, 커뮤니티 4개, 미디어분야 2개, F&B분야 3개, 메이커스 6개 등 총 19팀 33명의 창업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창업자들은 창업 활동 이외에 매주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


그간의 창업 지원과는 달리 광주시민회관은 로컬리티(지역성)에 기반한 ‘공간재생과 창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남은 과제는 가장 먼저 공간의 유연성 확보이다. 사업 초기 그간의 유사사업에 대한 관성으로 창업자 개별 사무실을 시민회관 내에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 입주기관의 공간 부족 및 대안 부재로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판매하는 공간 지원과 코워킹공

간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주차장으로 전용중인 야외광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 광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창업공간의 유연성 확보와 전면 광장의 활용은 시민회관이 가진 공간의 매력과 파급력을 더욱 키울 것이다.

수익에 대한 공적 기여방안도 고려할 부분이다. 시민회관이라는 공적 자산을 활용한 수익활동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공적 기여를 유도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사업의 지속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간의 경과를 돌아쳐보면, 사실 많은 부분이 미흡했고,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재생과 문화콘텐츠를 다루는 종합적인 로컬매니지먼트 그룹으로 자리 잡겠다는 우리들의 포부와는 달리 처음 시도되는 사업모델과 창업 지원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다. 좀 있어 보이는 사업의 모양새와 사업비 때문에 질사와 오해도 받았으며, 사업에 끼워달라거나 인력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 심지어 사업 초기에는 가짜 정보를 통한 투서도 있었다. 시행착오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믿거름이 되겠지만, 무리한 요구나 가짜 정보의 흘림은 사업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고, 참여 구성원들의 사기를 심각히 저하시켰다. 어쨌든 이것도 시민회관의 재탄생을 위한 산고라 여기고 흔들림 없이 정당하게 갈 것이다.

쇠퇴한 도시에서 지역주민에게 익숙한 역사적 건축 공간이나 자연환경이 문화공간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도시의 재생과 지역 정체성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부여한다.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함께 그 문화공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낡고 오래된 공간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이야기 자원이 되고 미래유산이 된다.

존경하는 은사, 임영배 교수의 작품을 청년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1971년에 만들어진 광주의 대표 시민공간이 50년이 지난 오늘, 청년 활력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셀프서비스

-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투어

이정난_카페필로소피아 회원



겨드랑이에 인생의 참 맛을 깨우쳐 볼 수 있는 한 권을 책을 끼고 호주머니에는 찻값을 치를 지폐 한 장을 예비하여 철학이 이끄는 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나서보려 하는 기다림이 한편으로 멋스러운 즐거움이지는 않겠는가.

철학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걸까. 바위에 깬 이끼는 스스로의 자양분이 되어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에 기여하기도 한다. 철학의 자양분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20여 년의 기간을 철학의 향기를 전파해온 카페가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곳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성진기 교수님(전남대 명예 교수)이 이끄시는 '카페 필로소피아'가 바로 그곳이다. 그 중심에는 서로의 영혼을 함께 더불어 온 회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카페 필로소피아'의 회원들은 대부분 철학적 삶의 갈증 때문에 찾아든 늦깎이 학생들이다. 교수님 강의가 끝나면 차 한 잔을 나누며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면서 삶의 다양성(예술, 철학, 역사)과 깊이에 발을 담가 보기도 하고, 다양한 관점의 사유들을 향유해

보기도 하는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고는 한다.

'철학으로 무엇을 하라!'란 타이틀로 의미 있는 강좌를 꾸려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노 철학자인 교수님의 은발에서는 항상 삶의 지혜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 교수님에게는 광주가 인문학적 사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 당신의 간절함의 열정이 늘 새로운 모습으로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다. 교수님의 열정의 원천은 무엇일까를 나는 가끔 생각하여 본다. 어쩌면 그것은 '참된 세계를 꿈꾸는 철학적 사유'의 본보기가 아니었을까.

2020년 광주 동구청이 '지역의 인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문 동아리 지원 사업'을 열었다. 이에 '인문학 동지'란 명명으로 '카페 필로소피아'가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코로나19



『행복의 정복』



『화해』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사는 게 힘들다고 니체가 물었다』

시국의 여파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게 되고 말았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카페 필로소피아’는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 투어’를 실행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은 다섯 권의 책을 선정해 한 권씩 책의 내용을 가지고, 동구에 이름난 카페를 선정하여 돌면서 철학적 담론을 펼쳐 보자는 내용이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The Box 카페’에서 처음으로 ‘인생을 얘기하는 카페 투어’의 빗장을 열었다. 카페의 공간적 한계로 인원 제한을 두었으나 예상 밖으로 80명이 접수되어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첫 번째 도서로 선정된 『행복의 정복』에서 버트런드 러셀은 크게 1장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 2장 행복으로 가는 길, 두 파트로 나누어 기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삶을 즐기고 있다. 한 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나의 삶은 점점 즐거워 질 것이다. 이렇게 삶을 즐기게 된 비결은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대부분 손에 넣었고, 본질적으로 이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단념했기 때문이다.”(17p)

버트런드 러셀이 『행복의 정복』에 담아내고자했던

내용의 일부분이다. 불행을 접고 행복을 잡은 일은 물론 손쉽게 건널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 성진기 교수님의 진행으로 이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었는데, 참석자분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자체로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았다. 그렇게 행복이란 대단히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가장 가까워서 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두 번째 꼭지(6월 28일)를 위한 시간이 금세 다가왔다. 그러나 광주에 코로나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정적으로 회합의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8월 2일에 와서야 두 번째 시간의 빗장을 열었다. 예방수칙에 따라 안전을 지키는 범위에서 참가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김넷과 카페’에서 틱 낫 한 스님의 『화해』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는데, 이 시간은 고희일(전남대 명예교수) 교수님이 진행을 맡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법.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두 팔을 벌려 귀중한 삶을 소중히 보듬어 안고 깨어 있음을 잊지 말고, 절망일랑 놓아 보내십시오.”

『화해』의 첫 페이지에 담긴 틱 낫 한 스님의 서문 중



일부이다. 곱씹고 싶은 언어들 속에 지금 꼭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깊이에 접근해 가는 방법을 깨워주는 내용으로 고희일 교수님과 함께한 토론의 장은 불꽃처럼 타올랐던 것 같다.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논리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았다.

이렇게 2회에 걸친 만남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먼 듯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를 들려주는 가벼운 기다림이 자리하고 있기도 하였다. 한 주 뒤에 있을 세 번째 꼭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가 세 번째의 도서였는데, 이 책은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사람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을 오구라 히로시가 해설한 도서이다. 이 도서를 읽고 온 참가자들이 8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 있는 카페 ‘달정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 날은 카페 필로소피아 회원이신 박성자 선생님이 진행을 맡았다. 아들러 이론을 손에 들려주듯 쉽게 풀어내는 마력 같은 강의에 이끌려 참가자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 속으로 빠져 들었다. 깨어보니 구운몽이라! 일요일 쉼의 시간을 이곳에 옮겨와 보낸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참석자의 발언과 열렬한 박수, 가슴 벅참까지 함께 했던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었다.

다시 네 번째 꼭지를 진행될 시간을 정중히 기다렸다. 더 이상 어떤 변수도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나의 지나친 바람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되었던 걸까 모임 하루 전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대에 식사를 했던 분이 행사를 진행할 찻집에 들렀던 분과 며칠 전 식사를 했다고 한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코로나19는 그렇게 도처에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는 게 힘드냐고-니체가 물었다』를 읽고 나서 가질 예정이었던 회합의 시간을 한동안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를 장식할 도서 『무탄드 메시지』를 끌어 당겨 미리서 탐독했던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겨드랑이에 인생의 참 맛을 깨우쳐 볼 수 있는 한 권을 책을 끼고, 호주머니에는 찻값을 치를 지폐 한 장을 예비하여 분위기 좋은 찻집까지 철학이 이끄는 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나서보려 하는 기다림이 한편으로 멋스러운 즐거움이지는 않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이 괴질의 시기가 가라앉아 우리들의 일상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ㄴ

지역문화기획을 위한 순수한 열정

김병희_ 문화기획단 유별라 대표



문화기획단 유별라는 2016년 5월, 오월길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당시 오월길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조직된 기획팀이 처음으로 손발을 맞춰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해보면서 문화기획의 즐거움을 느꼈고 구성원 대부분이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문화기획을 해보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정식 단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 문페스티벌

문화기획단 유별라에서 자체 기획한 첫 축제입니다. 단체를 등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시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축제의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달이 프린팅 된 티셔츠를 함께 입고 이야기 나누었으며,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회용품 사용 문제에도 화두를 던지고자 일회용품 사용이 아닌 참가자 모두에게 도시락 통을 배포하여 축제장에서 준비한 음식 등을 도시락 통에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1회 밖에 개최하지 못했지만 언젠든 준비가 된다면 2회, 3회 계속해서 진행

하고 싶은 축제입니다.

#2 해동문화축제

문화기획과 도시재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담양의 전통 주조장으로 과거 유명했지만 쇠퇴한 공간인 (구)해동주조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해동문화축제라는 축제를 진행했는데 지역과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기획이 모두 결합한 축제였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막걸리를 모두 공수하여 지역민들이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과거 해동주조장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자전거와 막걸리 통을 활용하여 전통 흑백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항상 신경 쓰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의 일환으로 시음용 막걸리 통들을 화분으로 활용하여 가드닝 체험을 하는 막걸리 통 가드닝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 공간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3 진로토크콘서트

문화예술 콘텐츠는 경험재라고 말합니다. 경험재



오월길페스티벌.

(經驗財)란 경험을 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재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접하며 그 경험들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최근에는 진로토크콘서트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광주·전남의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음악과 토크가 결합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문화기획자, 예술가, 연주자 등 평소 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다양한 악기를 구성한 퓨전 국악 밴드의 공연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콘서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6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100회까지 꼭 채우고 싶습니다.

#4 문화기획자란?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각종 문화 예술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만드는 데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해내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문화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화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하며 숨어 있는 것들은 찾아내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획자들마다 다양합니다. 저는 주로 축제와 콘서트를 활용하여 구현하고 있습니다.

#5 그 외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말 많은 기획자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힘내라는 말조차도 건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문화기획자, 문화예술종사자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아트페어

박상현_ 상상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필자는 어렸을 적에 봤던 tv애니메이션의 영향 때문인지 2020년을 미래 세계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숫자처럼 느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를 찾아 우주를 여행하고 그 속에서 각종 모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현실의 2020년은 일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어렸을 적 기대와는 한참 다른 모습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0년은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고 문화예술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중 미술시장인 아트페어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스위스 아트바젤’은 6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가 결국 취소됐고, ‘홍콩 아트바젤’은 온라인으로만 개최됐다. 상반기에 열리기로 했던 국내 아트페어들도 연기와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 미술계는 이를 ‘잃어버린 2020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3월에 열린 ‘홍콩 아트바젤’은 온라인 페어를 열어 ‘온라인 뷰잉룸(Online Viewing Rooms)’을 통해 미술품 거래를 진행했다. 첫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등 소비자들

의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며 18일부터 25일까지의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방문객은 25만 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방문객 8만 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2월에 열렸던 국내 최초 아트페어인 화랑미술제는 코로나로 인해 예년 같지 않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 부산, 광주 등 하반기에 예정돼있는 아트페어 또한 예전과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중론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 방역을 최우선시하는 형식으로 준비 중이지만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술시장은 지속돼야 한다. 특히 ‘아트광주’는 광주 지역의 유일한 미술품거래 시장으로서 지역의 미술품거래를 활성화하고, 작가들이 광주를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된다. 광주는 거래를 활발하게 할 만한 갤러리의 역할이 너무 작다. 현재 한국화랑협회에 등록돼있는 광주의 갤러리는 단 2곳뿐이며, 누가 봐도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 소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히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아트페어를 주최하고 있다. 아트광주의 시작은 민간이 광주

아트광주는 창작지원에 집중돼 있는 현재 광주미술계의 유일한 판매시장 지원 정책이며, 이를 통해 작가와 갤러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창작과 유통에 대한 지자체 지원 예산 분배, 재배치를 통해 문화도시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광역시에 제안해 사업비 매칭으로 1, 2회 행사가 진행됐고, 이후에는 광주광역시가 매년 주관단체를 공모해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좋게 보면 지자체가 부족한 미술시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포지션을 맡고 있다 볼 수도 있지만, 아트페어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사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행단체는 이득을 남겨서 다음 해 사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기 힘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확대에 치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유일한 미술품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 아트페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주최, 주관이 누구냐를 떠나서 아트페어는 말 그대로 미술품거래가 주된 목적이며 이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도 없고, 전문적인 운영인력을 훈련, 양성시켜 페어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행사가 열리는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광과 접목해 페어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페어와 관광을 접목해 진행하는 나라는 무수히 많다.

국내에서 열리는 페어의 성향은 갤러리 주최로 기성작가의 작품(소위 팔리는 작업)들이 주가 되는 페어와 청년작가를 위한 페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 둘

은 미술품 판매라는 동일한 목적이 있지만 다르다. 갤러리가 주최하는 페어는 오직 거래를 통한 완벽한 사업시장을 추구하는 한편 청년작가를 위한 페어는 소개 및 시장성 판단을 위한 실험적 성향으로 작가들의 성장을 추구한다.

아트광주에서는 이 두 성향을 함께 볼 수 있다. 광주만의 특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갤러리들은 마트와 직거래 장터를 한곳에 몰아넣고 장사하라 한다며 거부감을 표하기도 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광주만의 특색으로 보여주기에는 다소 시장 논리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사실 나열과 비판에 집중했지만 아트페어의 순기능은 분명하다. 아트광주는 창작지원에 집중돼 있는 현재 광주미술계의 유일한 판매시장 지원 정책이며, 이를 통해 작가와 갤러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창작과 유통에 대한 지자체 지원 예산 분배, 재배치를 통해 문화도시 광주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술품 구매는 옳은 소비이며, 분명한 메리트를 가진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미술의 순기능으로 아트광주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

『창』, 담론과 공감의 네트워킹

— 창 통권 50호 기념 대담

사회자 이기훈_재단 상임이사

대담 김 성_전 재단 편집위원장
김정희_현 재단 편집위원장

이기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창립 1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의 통권 50호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 통권 50호를 기념해서 『창』이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과 지역사회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 현직 편집위원장 두 분 모시고 대담을 마련해보았습니다. 먼저 가벼운 이야기부터 나누실까요? 『창』이라는 제호를 정하게 된 계기나 혹은 이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 성 이게 벌써 15년 전 일이 되어가지고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김정희 편집위원장이 표지에 잘 정리해놓으셨지요, 『창(窓)』의 큰 뜻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도 윈도우를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창』이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랄까, 넓은 생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할 수 있고, 2005년에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이 세워지고 같은 해 12월엔가 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도 했는데, 그런 시기를 앞두고 광주시민이 새로운 시각

에서 문화, 정치, 사회를 아울러 보자는 뜻을 포괄해서 담고 있는 이름으로 『창』을 채택했던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 사실 뭐, 비빔밥보다 낫지 않을까요? 문화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보다? (일동 웃음) 예를 들어 『창』 잡지의 성격상 문화, 정보, 소식, 소통 등 다양한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데, 웹진도 같이 발행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뿐만이 아닌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창』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매호 『창』을 기획하면서 가끔 어떤 면에서 『창』이 “창과 방패”의 “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문화정책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창작 이론의 ‘은유’와 같은 것 아닐까요? ‘무엇을 다른 무엇으로 봄’ 같은...

이기훈 초대 위원장님보다 현직 위원장님의 해석이 좀 더 좋네요.

김 성 네, 좋네요. 우리가 정치, 사회 분야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는데, 문화중심도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측면도 『창』의 이름을 정한 이유였죠.

이기훈 제가 입사하기 전입니다만, 계간지 제호를 정할 때 초기에 우리 재단을 만든 분들의 고민과 흔적, 노력들이 함축되어서 『창』이라는 제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재단이 『창』 발행 계획을 하면서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창』제호를 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시면서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창』이 답아야 하는 가치를 초기에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김 성 구체적으로는 ‘문화중심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게 첫째였고, 둘째는 ‘호남학진흥원’을 만드는 데에 우리 『창』이 서포트를 하자는 게 다음 목표였죠. 그래서 재단 이름도 지역문화교류재단이라고 지었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 단체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자는 뜻이었는데, 2005년 4월에 창립대회를 한 뒤에 12월에 문화관광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의 고리타분한(?) 관료가 재단 이름에 꼭 호남을 넣으라고 했어요. 중간에 호남이 들어가서 『창』도 보면 2호부터 호남이 들어갔어요. 1호는 지역문화교류재단이다가 2호부터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됐고요. 아무튼 『창』도 그런 내용 중심으로 실렸었죠.

김정희 앞서 김 성 편집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성공’이라든지 ‘호남학의 진흥’을 화두로 삼아서 책을 편집하려고 방향을 잡고 그 주제를 담아내 주실 수 있는 필진들을 섭외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블랙홀처럼 광주의 모든 문제 특히 문화단체의 문제를 소비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그때는 새로운 문화환경 속에서 문화행정과 기획의 방향을 제시



하는 투명한 『창』이 아니라 고정관념에 묶여 전달과정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성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은데, 당시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은 해양중심도시, 서울은 금융중심도시, 대전은 과학중심도시, 광주는 문화중심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때 광주시민들은 의아했어요. 문화가 밥 먹여 주냐, 문화로 밥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정부 정책은 문화정책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미래에 문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 『창』을 읽고 있는 식자층들에게도 이것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창』으로 일조했던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성과는 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기 싫어서. (일동 웃음)

김정희 정보의 공유가 잡지의 본래 역할이고 의미라면 그런 면에서는 『창』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유하고자 했던 정보나 문화 담론이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돌아봅니다.

이기훈 저희 재단 창립 시기가 지역의 큰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김정희 현 재단 편집위원장

창작과 향유 소통과 매개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창』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정 부분 젊은 문화 기획자들도 공감하는 건강한 문화생태계의 모습, 이론 대신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을 위해 현장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본격화되려는 시기였고, 한국학호남진흥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역의 요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도 행정이나 기관만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게 저희가 가진 문제의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면을 통해서 이 두 핵심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담론을 다양한 시각으로 『창』에 담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창』 발행을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이러한 가치와 지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출발했다고 하면 현재 『창』은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성과와 아쉬움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희 저는 『창』에 ‘하다’와 ‘쓰다’가 같이 담겨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신문처럼 알리는 형태의 기사화가 아니라 분명 이 사회의 문화매개체로 확실한 질문과 해결의 촉진을 위해 힘 있는 잡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창작과 향유 소통과 매개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창』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정 부분 젊은 문화 기획자들도 공감하는 건강한 문화생태계의 모습, 이론 대신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을 위해 현장 이

야기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김 성 김정희 위원장이 편집장을 맡으면서 앞서 비판도 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호남학을 벗어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충분했냐는 물음을 하면 저도 아쉽다는 마음이 들고요. 하지만 초창기 『창』을 만들던 사회와 지금은 너무 다른 사회예요. 너무 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1인 매체도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종이 잡지를 발행해서 효과를 낸다는 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교류재단’인데 이 잡지의 내용이 ‘광주’ 안에만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정희 꼭 필요한 지적 이십니다. 저희가 직접 다른 지역으로 취재를 못 가면 문화단체마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니 거기 실린 중요한 소식이라도 전하는 코너를 만들어야겠어요. 서로에게 힘을 주는 문화잡지의 네트워킹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김 성 『예향』이나 『대동문화』는 상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상업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회원들을 위한 것인데, 그 안에 다른 지역의 문화에

초창기 『창』을 만들던 사회와 지금은 너무 다른 사회예요. 너무 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1인 매체도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종이 잡지를 발행해서 효과를 낸다는 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 성 전 재단 편집위원장

술 활동 소식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문화재단이나 예향, 대동문화재단 모두 그런 소식을 넣지 않고 있어요. 먼저 그런 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기훈 『창』이 초기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재단의 출발이기도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한국 호남학 진흥원 건립을 위해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문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교류 사업의 내용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 짚어보아야 할 것 같네요. 『창』만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을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두 분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성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국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정책과 지역사회 소식을 알리는 알림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희 잡지의 뿌리를 생각해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상업 잡지를 보면 광고주의 제안이나 이익에 따라 내용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 있는데, 『창』은 다양한 문제

에 대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도 문화 전문가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창』의 볼륨을 더 키울 수 있었으면 더욱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창』이라는 이름처럼 조금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아볼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 성 『창』이라는 인쇄 매체에서 볼륨을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책, 창작 등 여러 분야로 나눠서 볼륨을 올리는 것, 그것으로 인쇄 매체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의 시대라고 난리인데, 라디오도 지금 다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디오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 매체도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뚫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요.

이기훈 저희가 『창』을 홈페이지에 웹진처럼 볼 수 있게 해서 책을 발송할 때 함께 보내고 있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쇄매체가 가면 갈수록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인쇄매체의 기본을 버리지 않되 온라인과 연계해서 『창』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많이 말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광주가 문화 담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화 사업, 문화 행사, 문화 기

획을 중심으로 논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창』은 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문화 민주주의 문제나 문화 정책의 문제를 담아가는 게 차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민주주의가 정착해가는 데에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이요.

김정희 김 성 전 편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섹션을 분야별로 나눠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구분해서 인쇄 매체로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한걸음 더 들어가서 합리적 사유(?)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기훈 저희가 현실적으로 당장 50호부터는 무언가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분야에서 재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지만, 그중 재단의 대표 사업인 『창』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현직 편집위원장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빠르면 51호부터 담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창』의 미래를 위한 두 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한 마디로 ‘창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창』이 그 시대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어떻게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전달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창』이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담는 그릇이거나 눈이라는 의미에서 ‘바르다’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공부와 밥과 우정이 함께 하는 것이 인문학적 삶이라고 하더군요. 공감되는 인문적 삶을 지향하는 잡지- 어쨌든 잘 만들어진 잡지, 잘 만들어진 『창』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이기훈 창을 한 마디로 정리해주신다면요?

김정희 어떻게 보면 예술과 문화와 인문이 다 들어 있는 ‘토스트’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스트’라는 음식은 언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어쨌다 보니 비빔밥이나 토스트 등 먹거리로 비유하게 되네요.(웃음)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모든 걸 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기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훈 예, 다음으로.

김 성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브로셔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재단이 할 일이 지역문화의 담론 및 교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문화가 광주만의 지역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을 넓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창립 당시 두 가지 목적을 두었다고 말했었는데, 그것을 넓혀서 그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창』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기훈 예, 창 통권 50호를 기념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창』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 현직 편집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좌담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잘 반영해서 지역과 시민들에게 좀 더 사랑 받는 『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소식]

•사업

제 9기 역사문화시민대학 경남통영탐방으로 마무리



경남 통영 문화 탐방을 끝으로 제9기 역사 문화시민대학이 마무리되었다. 약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탐방에서는 세병관, 청마박물관, 박경리 기념관, 동피랑 마을 순으로 문화해설사와 동행하며 진행되었다. 당초 6월에 진행기로 한 통영 탐방은 코로나19로 두 달 가까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높은 열정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역사 문화시민대학은 매년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명망 있는 강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문화강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조직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기획회의 개최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통권 49호) 평가 및 가을호(통권 50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금)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 가을호 특집기획으로 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시선으로 만나는 '재단의 현주소와 미래'를 그려보는 내용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진단에서는 외부의 시각으로 창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문화톡톡에서는 전·현직 편집위원장의 대담을 통해 『창』 회고와 전망을 담기로 하였다. 한편 9월 발행 예정인 『창』 가을호는 문화인 탐구생활, 기획연재, 문화청년그룹 소개, 문



화리뷰, 문화톡톡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지며, 재단 임직원 및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된다.

2020년도 제 7차 정기 임원회의 개최



2020년 7차 정기 임원회의가 7월 8일(수) 18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광주가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하반기 재단 사업과 조직 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논의결과 7월에 계획한 주요 사업은 취소 또는 연기하고, 8월 이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 19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7월 중 개최하기로 했던 임직원 문화나들이가 취소됨에 따라, 여건이 가능한 임원들이 오는 7월 18일(토) 김상윤 전 상임이사 집을 방문하는 문화번개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20 임원 문화번개팅

재단 임원 문화번개팅이 지난 7월 18일(토) 임원 및 사무처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상윤 전 상임이사 집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7월 11일(토)에 추진키로 했다가 코로나 19로 취소된 임직원 문화나들이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으며, 임원 상

재단소식



호간의 친목도모, 재단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전망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재단 프로젝트 사업팀 회의



재단 프로젝트 사업팀 2차 회의가 7월 20일(월) 18시 30분에 메이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위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광주시, 전당과의 협력, 국비 사업 프로세스를 감안하여 제안된 사업의 재구조화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차기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구축 사업 총감독으로 선정된 진시영 위원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재단이 참여할 수 방안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연대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포럼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포럼이 지난 6월 24일(수)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광주시 실 국장, 유관기관, 전문가, 시민문화예술단체, 문화 현장을



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및 공약 이행도 △ 문화 행정 혁신 및 문화 협치 구축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민선 7기 1년 평가 공론의 장에서 도출된 결과의 이행 여부의 점검, 민선 7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및 하반기 지역의 문화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40여 개 시민문화예술단체와 청년문화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광주시민 종전 선언식열려



지난 7월 27일 (월) 정전협정 67주년을 계기로 200여 단체와 300여 명의 인사들의 의지를 모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광주시민 종전 선언식이 열렸다. 우리 재단도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 상황 공유 및 이를 해소하기 실천 방안을 시민들의 함께 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선언식을 기점으로 참가자들은 남북합의 이행, 남북대화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해체, 군사훈련 중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 내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다.

전남, 일신방직 공장부지 매각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하는 간담회 열려



전남, 일신방직 공장부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 간담회가 지난 8월 21일(금) 오후 2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NGO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해당 공간의 역사·문화·건축적 의미, 공간의 도시재생 활용 사례로 본 시사점, 광주시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 절차 발표 후에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해당 부지는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산업 자산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기대와 업체의 이익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였다.

성명서

- 광주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 공모·선임절차관련 입장 (20.08.04)
-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발의 관련 시민연대 입장 (20.08.18)
- 광주시립극단 논란 관련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 입장 (20.08.27)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송진희(호남대 예술대학장) 부이사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호남대학교 송진희 예술대학장이 6월 10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조성위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예술대학장을 맡고 있는 송진희 부위원장은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사, 광주문화재단 이사, 문체부 경평평가위원과 문화도시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 온 문화전문가로 정평이 나왔다. 송진희 부위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남도일보> 발췌

이민원(광주대 교수) 이사, 광주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공동위원장 참여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9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이민원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대면회의로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실효성있는 정책개

회원소식



발을 위해 집단심층면접(FGI)을 활용,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광주시 사회적경제 현안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제3차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에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대와 나눔의 정신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남도일보> 발췌

이승권(광주대 교수) 이사, 사단법인 문화융복합학회 출범

사단법인 문화융복합학회(회장 이승권 조선대학교 교수)는 오는 12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I-PLEX에서 학회 출범식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문화융복합학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문학적 견지에서 문화 산업과 문화콘텐츠의 연구 및 보급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뜻있는 학자들과 언론인, 기업인, 문화 활동가 등이 모여 만들었다. 문화융복합학회는 이론적 학술활동을 넘어 현장의 문화활동가들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모아 소통하는 허브의 장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목표로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와 이 지역 사회 구성원의 더 나은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미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 <광주매일> 발췌

조인형(광주전남연구원) 운영위원, 최화용(세무사) 후원이사, <광남일보> 독자권의 참여



조인형=지난 봄, 코로나 19로 인한 고단함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중에 배달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 갈등이 부각됐다. 두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소비자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 지자체 차원의 공공앱 개발 의향 등 연쇄반응의

결과로 배달 앱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 공생관계의 연장이 이뤄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발생한 후속 사건 또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와 더불어 혁신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공생과 갈등예방 등을 다루는 기사가 서민경제의 고단함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이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기대한다.

최화용=정론지로의 역할과 언론의 현실을 감안하면, 차별화만이 <광남일보>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일회성 단편 기사가 아닌,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비평의식을 통해 끈질기게 기사화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본다.

- <광남일보> 발췌

남성숙(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사,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선임



광주시는 (재)광주관광재단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초대 대표이사로 남성숙 전 광주매일신문 대표를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열린 창립 이사회에서는 남성숙 대표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순위 추천을 받았다. 남 대표는 과거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근무한 공직경험과 그간 언론사를

이끈 경영리더십 등을 감안해 관광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남성숙 선임 대표이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 기존의 관광 이미지에서 벗어나 통합마케팅 전략 수립과 홍보, 관광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에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광주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메이킹으로 ‘관광 광주’를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의 소리> 발췌

안태기(광주대 교수) 부이사장, (사)한국이벤트협회 광주-전남지회 6대회장 취임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는 13일 정기총회를 열고 안태기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안태기 교수는 “2년 임기동안 지역이벤트 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계 이해 당사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최우선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관광관련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활동과 각 지자체 및 단체들과도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관광과 이벤트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는 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사단법인 승인으로 중앙의 본부와 전국 각도와 광역시로 10개 지부 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 <위키투리> 발취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이사, 박사학위 수여



윤만식 감사는 조선대학교대학원 문화학과에서 「민중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미친 영향 - 5·18 민주화운동의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김용철(동명새마을금고 이사장)
- 이정훈(광주광역시 시인협회 부회장)
- 신현준(대학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통강좌

문화관광도시 광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2020. 9. 16 ~ 9. 26(매주 수·금, 토요일 답사)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 모집인원 40명(선착순 마감)
- 참가비 2만원(회원단체 1만원) ※ 답사비용 포함, 추가비용 없음
- 예약번호 광주은행 019-107-333994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참가신청 광주문화도시협의회 ☎062-234-2727

광주를 생각하는 도시탐구 시민대학

2020. 10. 6 ~ 11. 13 (매주 화·금)
동구 미로센터 및 광주 일원

- 주 최 : 광주광역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 주 관 : 지역문화교류효남재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마감)
- 참가비 : 무료
- 참가신청 : 지역문화교류효남재단 ☎ 062-234-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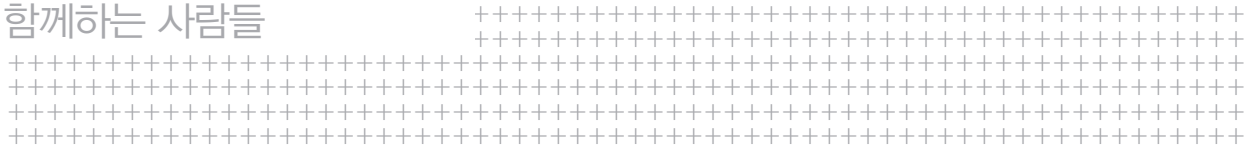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생통포럼

문화관광도시 광주! 필요충분조건 갖추었는가?

-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5시
- 장소 5·18민주화운동 기록관(7층 세미나실)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광주문도협 회원단체 +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연대
- 프로그램 추후 공지

※ 각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rcef.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행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 주간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헌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신영 소설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장지원 SDC 교장, 전 기아타이거즈 운영부장

천형욱 변호사

최화용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간사

김수아 청년인턴

신혜람 청년인턴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간사단체)

김여정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문학』 편집 주간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소설가, 국제 PEN 광주 회장

조은윤 시인



광주의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 풍경



1935년에 건설된 종방 전남공장은 1948년 전남방직공사로 명명되었고 1951년 11월 민간에 불하되어 1952년 11월 전남방직 주식회사로 새롭게 발족했다. 이후 1961년 4월 전남방직주식회사와 일신방직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의 역사현장이었으며 개발독재시대는 경제근대화, 그리고 1970~1990년대는 노동운동의 산실이었다. 현재는 공장부지 도시계획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후기

재단 창립 15주년과 『창』 50호를 기념하는 가을호를 펴낸다.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 흐르고 있을까? 처음 시작하던 때의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본다. 우리다운(?) 질감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기다리던 시간이었지만 허술함도 많았다.

재단의 속살과 미래를 진단해 보는 특집을 통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 않고 때론 뒤로도 간다. 그런 마음으로 『창』은 아시아와 세계를 내다보는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김상운 대표님의 당부 말씀을 읽으며 희망을 환기시킨다.

처음 재단이 설립될 때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의지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의 문제부터 정확히 포착하고 실천을 모색해야겠다. 우리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합리적 소통과 교류 그리고 문화를 매개로 하는 정서적 공명을 위해 애쓰고 싶다.

우선은 옥고 주신 고마운 필진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한다.

이 여름의 적막을 지나면 山빛 고운 가을이 오리라는 진실, 회원님들의 건강과 사무국 식구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한다.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